

“아니! 우리학교에 이런 곳이?” 캠퍼스 사진 명소



졸업식 사진 명소

이후승 기자 hooseung.lee@khu.ac.kr
안나연 기자 na@khu.ac.kr

#. 남는 건 사진이다. 졸업식도 예외는 아니다. 졸업식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 바로 사진이다. 학교에서의 마지막을 간직하기 위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심 없이 셔터를 누른다.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가족과 친구 모두와 기쁨을 나누는 시간, 좋은 사람과 함께 이왕이면 좋은 배경에서 사진을 찍고 싶지 않은가? 후기 학위수여식과는 다르게 양상한 나뭇가지가 아쉬운 당신에게 서울·국제 캠퍼스의 사진 명소를 소개한다. 정든 캠퍼스를 떠나는 대신 당신의 인생 사진과 함께 이를 달래보기 바란다.



1 서울캠퍼스의 자랑인 본관이다. 한국인이 설계하고 지은 최초의 석조전이다. 본관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동시에 담아내는 위치는 바로 본관 계단 사자 뒤의 난간이다. 이곳에 살포시 앉고 카메라 렌즈를 살짝만 들여보자. 하늘로 높게 뻗어있는 본관의 모습이 여러분과 어우러질 것이다. 한 가지 팁은 촬영자는 사자 옆 잔디에서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 안전에 유의하자. 바다가 돌로 되어있기 때문에 넘어진다면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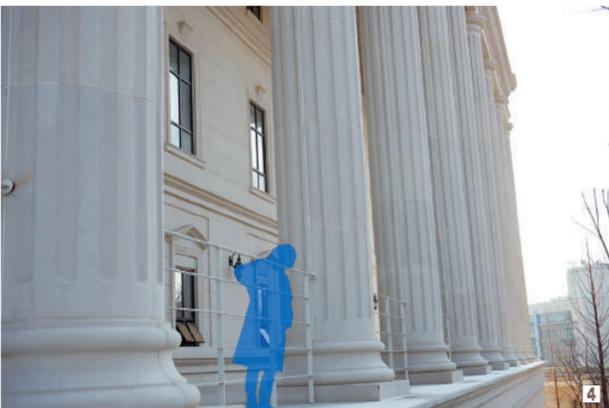
6 예뻐수록 꼭꼭 숨겨놓는다. 국제캠퍼스(국제캠)에서 가장 깊숙한 곳인 평화노천극장(노천극장)에 가보자. 노천극장에서 핵심은 기둥이다. 친구들과 함께 각자 기둥에 앉아보자. 기둥이 곡선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별다른 기술 없이도 모두가 사진에 담길 수 있다. 같이 간 친구들 모두 카메라에 담고 싶다면 맨 앞 사람 기둥에 카메라를 놓으면 된다!



2 우리학교 행사 뿐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 공연의 중심지가 된 평화의 전당은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이 유명하다. 하지만 유명할수록 깊이 들어가야 한다. 오른쪽으로 돌아가보자. 화성교와 동상이 여러분을 맞이한다. 그 동상 아래에서 멋진 포즈와 함께 셔터를 누르면 평화의 전당의 새로운 모습과 함께 그럴듯한 사진을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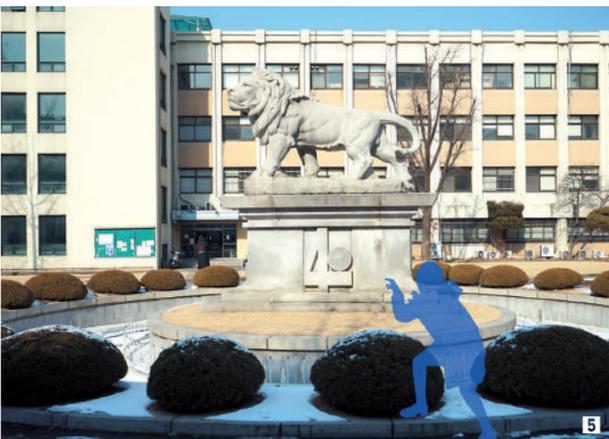
7 친구들과 같이 나오는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혼자만의 단독샷을 즐기는 사람도 있다. 장소는 동일하게 노천극장의 기둥! 무대 뒤 기둥 중 뒤쪽에 있는 기둥에 앉고 시선처리는 멀리! 사진을 확인하면 여기가 경희대인지 그리스 신전인지 착각하는 일이 벌어질 지도 모른다.



3 시험 기간, 지겹게도 들어갔던 중앙도서관이지만 그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모습을 담아 본 사람은 거의 없다. 이제 도서관에서의 공부는 잊고 도서관 오른쪽에 위치한 민주 공원에 올라가 보자. 앙상하게만 보였던 나뭇가지들이 중앙도서관 건물과 조화를 이뤄 여러분들의 사진에 아름다움을 한껏 더해줄 것이다.



8 중앙도서관은 정문 못지않게 웅장하다. 중앙도서관을 한 컷에 담기 위한 명소는 선승관에서 학생회관으로 내려가는 계단이다. 계단의 초입 연꽃이 그려진 돌 위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으면 중앙도서관을 한 컷에 담을 수 있다. 카메라를 바라봐도 좋고, 중앙도서관을 바라봐도 좋다. 어떤 자세라도 멋진 사진이 나올 것이다.



4 이제 곧 학생들에게 개방될 신설 단과대학동이다. 정면에서 왼쪽과 오른쪽을 보면 새하얀 기둥이 정렬해 있다. 하지만 조금 더 멋진 사진을 위해 오른쪽으로 가보자. 이곳의 기둥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고개를 살짝 내밀어 보자. 촬영자는 건물 아래에서 셔터를 눌러준다면 이곳이 경희대인지 유럽인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9 국제캠의 자랑인 네오르네상스 문, 정문이다. 학교 가는 길 무심코 지나쳤던 정문의 내부를 한번 보자. 그 안에는 웅장한 기둥들과 함께 '새천년 지구 공동사회 선언문'이 걸려있다. 새천년을 맞이한 지 18년째가 됐지만 이 문구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지금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참고로 점프와 같은 역동적인 모습을 담는 것도 하나의 팁이다.

10 국제캠의 사자는 체육대학에 위치해 있다. 사자 옆에 올라가 자세를 잡아보자. 이를테면 사자의 머리 밑에 편안히 앉아 있는 자세나 사자 얼굴에 본인의 얼굴을 맞대고 교감하는 모습 말이다. 사자에 쉽게 올라가는 팁은 체육대학 정문 계단을 올라가 난간으로 내려오는 것이다. 사자가 생각보다 높이 있고 바닥은 딱딱한 돌이니 안전에 유의하길 바란다.